복음의 쏠림현상과 부흥

(행2:14~47)

36.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37.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9.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0.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42.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복음의 쏠림현상과 부흥>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복음의 쏠림현상과 부흥'

쏠림현상이라고 하면 주로 사회적인 차원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누구 하나가 잘된다고 그러면, 나한테는 그것이 맞는 일인지 아닌지 잘 생각하지도 않고 전부 그 일에, 마치 나도 그렇게 될 것처럼 몰려드는 것, 이걸 쏠림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명지 대학교의 문화심리학 교수이신 김 정운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우리나라 요식업계에 조개구이 돌풍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개구이 전문식당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또 2000년도 초반에 찜닭이라는 게 우리나라 요식업계를 태풍처럼 몰아쳐서 뒤덮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찜닭이 없어요, 그 뒤에도 닭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불닭이다, 파

닮이다, 해서… 이게 쏠림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김연아 선수가 세계대회에서 1등이 돼서 이슈가 될 때마다, 딸 가진 부모는 너도 나도 다 피겨스케이팅 선수를 만들겠다고 또 쏠리게 됩니다.
이런 게 바로 쏠림현상이라는 거예요, 대중적인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유는 부화뇌동입니다.
피겨 스케이팅이 내 딸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차원의 사회적인 쏠림현상이 있고, 또 좀 기계적인 쏠림현상이 있습니다.
독일에 가서 공부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150만 원을 주고 79년도에 만들어진 독일 폭스바겐의 '파싸트'라는 차를 한 대 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썩어가는 차였지만 저에게는 일생일대의 첫 번째 차였으니까…
근데 이게 쏠리는 거예요, 핸들을 잠깐 놔보면 평지인데도 한쪽으로 쏠려갑니다.
그래서 고치면, 한 일 개월 타고나면 또 쏠려요.
아, 그 차는 차가 나를 태우고 다닌 게 아니라 그야말로 제가 차를 제 힘으로 끌고 다녔습니다, 쏠리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이렇게 쏠리는 현상이 본질이라는 얘깁니다.
복음의 본질 속에 쏠림현상이 들어있다는 얘기에요.
어떤 쏠림현상인지 그걸 우리가 알아내야 됩니다.
복음의 쏠림현상을 모르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잘못 될 수밖에 없고, 교회가 부흥을 추구할 때 비교회화, 탈교회화 돼버립니다.
복음의 쏠림현상을 알아서 이 쏠림의 방향을 맞춰주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참 교회부흥이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므로 부흥은 되었는데 교회는 아닌 게 돼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또, 부흥은 안됐으면서도 쏠림현상을 모르고 부흥을 추구하게 될 때 탈교회화 돼버립니다.
자, 이 복음의 쏠림현상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놀라운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으로 만들어진 그 공동체가 오순절에 성령강림하심을 통해서 교회로 탄생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생긴 직후에 교회 역사상 첫 번째의 설교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외국어 방언을 말하게 된 것을 보면서 기이하게 여기고 놀랍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 이러한 조롱이 발화점이 돼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외국어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일을 이야기하게 된 데에는 이러이러한 과정을 겪어서 나타난 결과다'라고 하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지금 성령 충만 현상이 일어나게 되기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사건이 있었는데, 성령 충만 사건도 요엘서에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 오늘날에 성취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기까지 일어난 이 십자가사건을 다윗이 벌써 예언을 했다, 그리고 다윗이 또한 그 메시아의 죽음과 아울러 부활에 대한 예언까지도 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늘로 끌어올리신 승천에 관한 이야기까지도 돼있었다, 그리고 그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보는 대로 이렇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지금 외국어 방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변증적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설교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복음이 들어 있어요.
베드로가 교회 역사상 첫 번째로 한 이 설교 속에 복음이 들어있는데, 복음의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깁니다.

먼저, 이렇게 설교한 이후의 베드로사도와 초대교인들의 모든 관심 속에서 제일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 지상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의 나라, 선민의 나라를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서 옛 다윗왕국의 전성시대를 재현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냐고 묻던 관심이 싹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복음의 쏠림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유대나라의 독립에 대한 관심은 영원히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없어져버리고 말고, 그 대신 이스라엘 나라를 식민지화 했던 로마가 복음을 통하여 기독교국가가 됩니다.
아!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직도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건 무얼 말하는 것이냐?
복음의 쏠림현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자, 보세요!
복음의 내용이 첫 번째로 선포되고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이야기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얘기됩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얘기됩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 주셨다고 얘기가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 충만이 얘기되고 있어요, 완전히 쏠려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쏠려있는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첫 번째 얘기되는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세상이 끝났다는 얘기에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난 게 죽음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그리스도요 우리의 주가 되게끔 하셨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자, 세상에서 좌절을 딛고 정말 영웅적인 역사를 창조해낸 자가 우리의 구주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죽은 자가 우리의 구주요 그리스도라는 얘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난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삶을 끝낸 분이 우리의 구주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지만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언제인가를 묻던 제자들의 관심을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영웅적인 활동을 벌이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다 모아서 마음을 묶어서 담보로 잡으시고, 승천하셔서 구름 위로 올라가버리셨습니다.
이게 바로 쏠림현상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쏠립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느 쪽으로 쏠려야 되나 하면 이 지구 바깥으로 쏠려야 됩니다.
인간세상 바깥으로 쏠리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증거라는 얘기에요.
이 쏠림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오른쪽에 쌀 20Kg를 들었다고 한다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야 정상 아닙니까?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복음이 쏠리는 쪽으로 우리 마음이 쏠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마음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

까, 라고 묻는 그 방향으로 마음이 가고 있거나, 가려고 하거나 한다면 이건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쪽으로 마음이 쏠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죽음과 부활과 승천 방향으로 쏠려가고 있는 겁니다.
즉, 지구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인간세상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출애굽이 인간 구원사건의 영원한 예표가 됩니다.
모세가 열 가지 재앙을 통해 기적적인 능력을 보이면서 대제국 애굽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대제국의 모든 권력과 자원을 다 손에 쥐고 동원할 수 있는 바로가 결국은 승복하고 히브리 사람들을 내보냅니다.
왜 구원의 예표인 해방 사건이 나오는 것일까요?
당시 지중해를 중심한 세계 속에서 애굽만큼 잘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애굽 안에서 구원이 임한다는 것은, 노예적 신분을 뛰어넘어서 정계 재계 문화 교육, 각계각층으로 히브리 사람들이 파고들어 가지고 그 각계각층의 요직을 장악해서, 그 사회 안에서 잘 먹고 잘살게 되는 게 해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가로질러서 광야로 나가버립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제일 잘사는 나라인 애굽땅을 놔두고, 그 땅에서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내몰아버립니까?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쏠림현상이 마음에 와 닿습니까?
완전히 인간세상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승천한다는 것은 구름 위로 간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이 땅에 아직도 우리의 몸이 살아있으면서 이 땅의 삶이 진행됩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구름 아래에 살고 있으면서 구름 위의 세상을 첫 번째 삶의 현실로 느끼면서 살아가게끔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주어짐은 쏠림현상의 완성인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완전히 구름 위의 세상을 나의 첫 번째,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지상의 어떤 삶의 현실보다도 앞선 현실로 느끼면서, 마음의 모든 기쁨과 행복의 결정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쏠림현상의 완성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쏠림현상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부흥은 비교회화를 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한다고 할 때,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숫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악되는 머리 숫자를 가지고 부흥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교회부흥은 예배당 안으로 사람을 많이 끌어 모으는 게 부흥이 아니라, 구름 위로 사람의 마음을 많이 모아들이는 거라는 얘깁니다.
3000명이 회개하게 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3000명의 마음이 구름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우리의 대응하기 위한 절차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8절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첫 번째가 회개이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여기서 회개는 무얼 회개하는 겁니까?
구름 아래서 기쁨을 찾고 행복을 찾으려 했던 것에 대한 회개라는 거예요.
출애굽이 홍해를 가로질러서 애굽을 빠져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 안에서 기쁨을 찾고, 이 세상 안에서 좋은 일을 찾고 이 세상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했던 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것은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된 것이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본래 죄인이었어요, 본래.
본래 죄인이었는데 율법이 있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째서 죄인이냐? 이 땅에서 기뻐하려고 했으니까…
죄의 결과로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에덴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기쁨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 기쁨의 땅 에덴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이 없으므로 기쁨이 없는 땅에서 기쁨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생겨서 에덴이었는데,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돈 때문에 기뻐하려고 한 것,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자식 잘 키워서 기뻐하려고 한 것, 애인 때문에 기뻐한 것,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과 먼저 만난 상태, 하나님의 기쁨이 전제된 상태에서 하와

를 만난 기쁨이 덧붙여집니다, 얹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슬프고 괴롭고 근심하다가 이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죄악이라는 것이고, 이 죄악이 더러움이고 타락이고 부패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단순히 물로 침례를 받는다는 행사적 의미를 떠나서 죽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서, 구름 아래서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던 그러한 기질이 골수까지 파묻혀서 도저히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향상이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 세상 것을 획득함으로 기뻐하려 하는 이런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악에 있기 때문에 향상의 가능성, 개선의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세례를 말합니다.

이렇게 죽게 되면 부활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고, 구름 위의 세상을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이 땅에서 주어지는 상황보다 앞서 있는 현실로 느끼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흥이란 예배당 안에 사람을 모으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관점을 바꿔버리세요.
사람의 마음을 구름 위로 모아들이는 게 바로 부흥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쏠림현상을 따라서 복음이 전달될 때 나타나는 일이 뭡니까?
모든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서로 통용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 쏠림현상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잘살려고 하는 한에서, 이 세상에서 기쁨을 찾고 꿈을 찾고 형통하려고 하는 한,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줄 수 없습니다.
이럴 수 있는 이유는 구름 위에 있는 천국이 내 마음에 우선적인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바로 내 삶의 궁극적인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걸 지금 알고 느끼고 있고, 믿음 안에서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쏠림현상이 있는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을 때 나타나는 현사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인간세상 바깥으로 쏠려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인간세상 안에서의 기쁨과 행복을 찾는 일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 안에서 구름 위의 천국으로 기뻐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천국을 현실로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천국이 나의 기쁨이 된 사람들이, 복음의 쏠림현상을 따라서 마음이 구름 위로 올라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천국이 그들을 통해 확장되어 가는 것이고, 바로 그 이야기를 교회가 생긴 첫 날부터의 역사를 통해서 사도행전이 기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쏠려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쏠림현상이 본질적인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도 근본적으로 구름 위로 쏠려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름 아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이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